업계소식

원캔네트웍스, 원자재 가격동향에 관한 세미나 개최

▲ 원캔네트웍스는 지난 4월 15일 용산역 KTX 대회의실에서 "원자재 가격동향에 관한 세미나"를 개최했다.

원캔네트웍스(대표 홍평우)는 지난 4월 15일 용산역 KTX 대회의실에서 자재판매 및 설비건설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"원자재 가격동향에 관한 세미나"를 개최했다.

이날 세미나에서 삼성경제연구소 이지훈 박사는 "급등하는 원자재가격, 향후 어디로?"라는 주제로 ▲국제 원자재가격 고공행진 ▲원자재가격 오버슈팅 ▲소수품목이 가격급등 주도 ▲4대품목(원유, 소맥, 전기동, 철광석) 가격 급등요인 분석 ▲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발표했다.

이지훈 박사는 "원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및 물가상승은 한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"며 "그러나 이런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가격급락 가능성이 충분하다"고 밝혔다.

또한 "물가급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국제자본의 움직임, 외환흐름,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점검하면서 현 상황을 주시한다면 조만간 해소될 것"이라고 강조했다.

한편 김현회 원캔네트웍스 기획조정팀장은 "최근 국재원자재 가격 급등, 정부 최저가 낙찰제 도입, 겸업제한 폐지 등으로 인해 설비건설사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"며 "법적, 제도적 환경 문제는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개선코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회사의 자구책 또한 필요하다"고 밝혔다.

김현회 팀장은 또 "공동구매를 통한 자재 구입은 구입단가 인하 효과와 함께 경영난 극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"이라고 강조하며 "원캔네트웍스는 공동구매 시스템 시행으로 설비건설사들의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업계의 많은 활용을 바란다"고 덧붙였다.